

시각의 책

자 떠나자 원호 찾으러



정호익 지음 / 46쪽 / 3000원 / 시공사

원호 스님을 다룬 책들은 많다. 원호 스님을 아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저자의 여행은 시작된다. 친구와 함께 현장을 누비며 원호 스님의 행적을 좇는 형식으로 된 이 책은, 기행문이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원호 스님의 사상을 충실히 담고 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호익 지음 / 46쪽 / 3000원 / 시공사

아무 고통도 없는 편안한 죽음을. 병든 아픈 건강한 아픈, 늙은이든 젊은이든, 누구나 죽음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다른 말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삶 저편의 세계는 어떠한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대한 사안은 죽음과 영혼 그리고 환생에 관한 질문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벽암록



정호익 지음 / 46쪽 / 3000원 / 시공사

선학(禪學)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벽암록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한 책이다. 해운(海雲)의 1700가지 공안 가운데 대표적인 100가지를 뽑아 본초(本朝)으로 소개하고 안무로 수시(垂示)와 경창(經誦)을 덧붙인 벽암록을, 사인이자 수행자인 오현 스님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것이다. 오현 스님의 해설 부분은 글이 '사해(鈔定)'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선학(禪學)에 익숙지 않은 요즘의 독자들에게 아주 자세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정호익 지음 / 46쪽 / 3000원 / 시공사

옛길

모든 여행의 종착지는 결국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돌아오기 위한 길 떠남, 여행이란 그런 게 아닐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행은 자기 자신을 가려하는 행위이다. 글을 쓰는 것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기억을 하나로 이어 모으고, 파편화된 자신의 흔적을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다.'

옛길을 통해 오지를 더듬으며, 지난 날 우리들의 살림살이와 자연에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배어난 문장으로 담아내고 있다.



정호익 지음 / 46쪽 / 3000원 / 시공사

좋은 인연 맺는 법

2급 시각 장애자이다 산학 대학을 나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 남산 스님. 파스 한 장으로 고집병을 다스린다는 의한한 방식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된 스님의 예세 이를 묶은 책이다. 지푸라기보다 더 나은 것도 없어 보이는 파스 한 장으로 돈도 없고 힘도 없이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 스님이 세상과 부대껴며 견져 올린 진솔한 이야기이다.

티벳에서 온 편지



정호익 지음 / 46쪽 / 3000원 / 시공사

'죽어 빠져 죽은 사람보다 살아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 빠져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현대 문명이라는 맹목도 그렇다. 그게 독인을 일면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길들여진 나머지, 점점 그것에 빠져들고 있다. 문명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로 필기구를 대신했다는 사실은 그 중 작은 예에 불과하다. 이 책은 한 문명인이 티벳에서 건져 올린, 자기 형용과 반성의 기록이자 그 대안에 대한 작은 모색이다.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큰 지혜



정호익 지음 / 46쪽 / 3000원 / 시공사

사람의 학교에서 보내는 '동아리'의 첫째 권. 재미와 감동을 함께 지니고 있는 12편의 이야기를 통해, 호도나 우렁, 핵감, 용기와 의의를 일깨워 준다. 경쟁과 속도에 내몰린 요즘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덕성을 길러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경쟁력 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만으로 천박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태디컬리 찾아가기』

선관책진(禪關策進)



문서주장 지음 / 46쪽 / 3000원 / 불교

'법은 가족을 이기고 군자는 입을 아낀다고 했다. 옛부터 전해 오는 말이다. '말'에나 하는 총 가막으로 간다고도 했다. 남의 손에 나라를 내 주고 숨죽이며 살던 때의 말이다. 또 말이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 했던가. 좀 으스스한 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보니, 말이라는 게 참 안 좋은 물건인 모양이다. 그런데 또 회한한 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접을 받고 사는 편이라는 사실이다. 작거나 신문 기자,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그럼, 말은 대단한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아무튼 골치아픈 물건이라는 틀림이 없다. 특히 선개(禪家)에서는 말을 극도로 경계한다. 말로 싸울 수 없고 싸워서도 안 되는 '그 무엇'을 찾는 게란다. 한 마디로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말을 버리라는 그 큰 소식 또한 말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도덕경의 구절 또한 좀 단단한 말인가. 그렇다면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로 귀결되는 것이다. 흔히 말한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고 같이 말한다. 손가락을 보는 건, 보는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이 잘못된 탓이

참말은 무명(無名)한 말이지 꼭 참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眞心)을 드러낸 말은 마음 그 자체다.

라고 헛손질을 하기 때문에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명(無名)한 손가락은 어떤 경우든 사야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가리킨 손가락(참말)은 달(본체)과 틀리 아니다. 그것이 곧 달인 것이다. 참말은 무명(無名)한 말이지 꼭 참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眞心)을 드러낸 말은 마음 그 자체다. 그러나 잘못된 말, 거친 말, 소음에 가까운 말, 분을 먹지먹지 바른 요란한 말은 마음의 감옥일 뿐이다. 또 구구한 말을 일을 했다. 해야 할 얘기는 안 하고 아까운 지면을 속였으니까. 반항처럼 불리했지만 '선관책진' 같은 책을 소개한다는 건 조금은 건방진 일이고 많이 미련한 짓인 것 같다. 선(禪)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비록 읽지 않았더라도 어떤 책인지는 알 것이고, 뛰어난 문사 주경 스님 또한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허난에 초판이 나온 후 30여 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이 책의 빛깔은 조금도 바래 지 않았다. 분명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책을 책장에서 보면 아주 든든하다. 백발이 성성한 데도 아직 정당한 교양의 노모를 보는 기분이다.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직접 구해서 볼 것을 간곡히 권한다. 달(본체)과 같은 책이다. 문해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yun@buddhania.com

『조상 숭배』라는 과거 돌아보기가 현재의 삶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불교의 가장 큰 축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부처님에 연등을 올린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의미이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에 돌아간 선상을 기리는 영가들도 함께 공양한다. 그런데 이 영가들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우각분절(백중)을 올려지는 영가들의 수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조상 숭배는 그야말로

불교의 가장 큰 축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부처님에 연등을 올린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의미이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에 돌아간 선상을 기리는 영가들도 함께 공양한다. 그런데 이 영가들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우각분절(백중)을 올려지는 영가들의 수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조상 숭배는 그야말로

자극하다. 조상의 보살핌으로 자신의 삶이 평온해졌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물론 조상없이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을 소중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상 숭배라는 과거 돌아보기가 현재 이 순간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거나 우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기말의 어수선했던 속에 과거에 얽매는 시류를 타고 뒷날 전부터 사십구제와 우각분절, 예수제, 천도제 등에 관한 책들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는데

이러한 책들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거 돌아보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차라리 '돌아보기'가 아니라 '배달'에 가깝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불법을 수행하고 정진해야 할 불자들이,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어 내 가족의 복만을 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본뜻은 아닌 것 같다.

어떤 이는 말의 잔치가 너무 요란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는, 출가 수행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시비를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 책들이 지나치게 딱딱하므로 이런 책들도 나름의

역할은 있을 것이다. '출가 수행자의 삶에 있어 정당은 무엇일까?' '출가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세상에 드러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이치들이 같은 여운들이 가슴에 남는다. 어떤 이는 말의 잔치가 너무 요란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는, 출가 수행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시비를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 책들이 지나치게 딱딱하므로 이런 책들도 나름의

역할은 있을 것이다. '출가 수행자의 삶에 있어 정당은 무엇일까?' '출가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세상에 드러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이치들이 같은 여운들이 가슴에 남는다. 어떤 이는 말의 잔치가 너무 요란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는, 출가 수행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시비를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 책들이 지나치게 딱딱하므로 이런 책들도 나름의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평온한 중 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빈손의 삶, 그것이 사문들의 삶이다. 비우고 또 비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출가 수행의 길이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이고 모든 이들에게 빈손의 삶이 가져다 주는 기쁨에 대해 들려 주는 책이다. 목욕조의 글과 글 속 상징 스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누구나 중으로 살 수는 있지만 함으로 중이 되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모든 것을 얻고도 불안해하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온 유교 문화의 권위와 위선에 대한 도전

이명 아베 힘을 가진 기관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 군림하려 한다. 법은 있으나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옛 가락 같은 법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흔히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예가한 다. 하지만 과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모든 부족들이 끊임없는 싸움으로 단일민족 운운하기에는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다. 유교 문화가 내세우는 것들 논쟁, 양반·상놈 논쟁은 역시 소외에 불과하다는 예가다. 더군다나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해외 입양은 어떻게 봐야 할까? 단일민족의 순수성은 어디 가고 내 귀족들을 수호한단 말인가? 저자는 마라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닌 '정지'를 위한 도덕, '남성'을 위한 도덕, '아름'을 위한 도덕, '기득권'을 위한 도덕, '주권'을 위한 도덕이었다. 때문에 공자의 도덕을 들고 선 유교 문화는 정치적 기만과 위선, 남성적 우월, 젊음의 황의성 말살, 주권 숭배가 낳은 우물함 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유교 문화는 조선 왕실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어 사농공상의 신분사회, 토론 부재를 낳은 가부장 의식, 위선을



부모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 이 사회는 바로 법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 인치 문화이다. 효도와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힘을 가진 기관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 군림하려 한다. 법은 있으나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옛가락 같은 법만 있을 뿐이다.

여시아문 추천 범공양 도서

- 1 원호 - 한국 사상의 새벽 - 고정섭 지음 / A5 292쪽 / 한길사 / 값 9,000원
2 나눔 스님 어록 - 무비 역주 / A5신 양장 310쪽 / 민족사 / 값 9,500원
3 천태 대사 - 그 생애와 사상 - A5신 266쪽 / 영신법화사 출판부 / 값 6,000원
4 고려 백운 어록 - 안법산 편역 / A5신 양장 304쪽 / 영양사 / 값 8,000원
5 조주록 - 백련선사간행회 번역 / A5신 310쪽 / 장경각 / 값 5,000원
6 일연 - 고운지 지음, 양진 사진 / A5 284쪽 / 한길사 / 값 8,000원
7 빙거사 어록 - 이리아 요시타카 주해, 양기봉 옮김 / A5신 양장 306쪽 / 김영사 / 값 8,500원
8 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 - 용성 큰스님 어록 - 풍산 찬집, 동봉 풀이 / A5신 양장 656쪽 / 불광 / 값 25,000원
9 피안으로 이르는 사자후 - 탄허 큰스님 법어 - 탄허불교문화재단 어록 편찬실 편 / A5신 276쪽 / 교림 / 값 7,000원
10 효봉 선사 일대기 - 김용덕 지음 / A5신 244쪽 / 불일출판사 / 값 6,000원

여시아문 동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전화: (02)737-0036, 732-1521
팩스: (02)737-0696